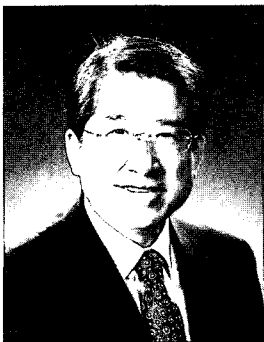


● 보건의료바이오산업 발전 견인차로서 진흥원의 역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BT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바이오 시대”입니다. 이는 BT가 IT이후에 세계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면서, 2000년의 세계 BT시장 규모가 540억불 규모에 이르렀고, 2013년에는 2,100억불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면서 BT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BT 강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BT가 21세기 인류의 건강, 번영, 복지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수년전부터 BT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BT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BT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머크,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 대부분의 톱글래스 제약사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또한, 암젠, 제넨테크 등 연매출 수십억불 이상의 거대 바이오기업들도 탄생시켰으며, 세계 BT기업의 34%가 미국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러한 BT산업의 발전 원동력은 연구투자로부터 유래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2005년 연방정부 R&D 예산 중 25%에 해당하는 295억불을 유전체연구, 진단기술개발, 임상연구 등 BT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5년까지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것을 목표로 「Bioscience 2015 : 바이오산업 증진을 통한 국민건강개선과 국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 기업 육성, 효율적인 임상시험 실시, 혁신적 신약의 조기 사용, 의료인과 과학자간 산·학·연 협동 연구 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연구결과의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Helix 계획’ 등 국가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05년도에 27억불을 BT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0년에는 25조엔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1,000개의 BT기업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전년도보다 18%가 증액된 7,086억원의 예산을 BT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치료제, 유전체 및 단백질, 줄기세포 등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바이오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산신약 제1호인 SK제약의 선프라주를 시작으로, LG생명과학, CJ 등 대기업과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제약사, 메디포스트, FCB 파미셀 등 벤처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전남대 장 관계 유전체연구센터는 세계 최초로 비브리오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완전 해독하여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하는 등 유전체 연구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그 방향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산업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지원해 주는 진흥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산업체 친화적인 현장중심 마인드를 가지고 산업발전전략 기획, 산업분석 및 정보제공, 산업체 경쟁력 향상, 미래기술예측을 통한 R&D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현주소와 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계 산업동향을 반영한 각종 지표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산업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 스코틀랜드, 러시아 등과 구축해온 국제적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미국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여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9월에는 우리나라 BT산업을 대표하는 “Bio Korea 2006”을 개최하여 “세계속에 BT 중심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의 기본기능 중 하나인 보건의료기술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모든 역량을 모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바이오분야의 핵심산업 중에 하나인 줄기세포산업 육성전략을 개발하여 향후 산업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입니다. 또한 의료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반구축 등 바이오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보건산업의 실태 및 현황을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최근 산업 동향 및 이슈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BT를 포함한 보건산업기술의 국내외 연구, 기술, 특허동향 등의 최신 정보를 다양한 고객층에 맞추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바이오분야 우수신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벤처기업 투자지원 확대, 바이오비즈니스 종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건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Bio Korea 2006" 국제행사를 통하여, 국내 우수 바이오 기술·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여 바이오분야에 대한 현황 및 미래의 방향을 알아보고, 국내외 바이오기업을 위한 전시회를 통하여 기술 및 제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기업 상담을 위한 장(場)을 마련하여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신 기술 소개 및 투자유치·제휴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넷째, 한-스위스 바이오메디칼 국제심포지엄, 한-스코틀랜드 바이오기술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BT선진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며, 유럽·아시아·북미지역 관련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보건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경영·기술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보건의료기술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사업, 미래보건의술개발사업 등 바이오 분야에 1,23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과 BT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임상연구 체계 선진화 및 BT 산업화를 촉진하여, 신규로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사업에 R&D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보 등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바이오산업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산업현장의 애로를 제도개선 등 정책으로 연결하고 산업육성을 위해서 산업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정보, 국제화 노력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R&D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기초기술 분야, 중개연구 분야 등에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보건의료기술계의 저변역량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공학기술의 산업화에 20년간 기여해온 한국생물공학회 회원 여러분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바이오산업에 대한 진흥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관심과 조언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